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2호

### 체육시민연대 칼럼

**민선 2기 체육회에 바란다**

### 민선체육회장 선거

**체육인 500만 명 중 체육회장 뽑는 이는 '단 0.01%'**

김재우 기호일보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 지도자 징계 요청**

박강수 한겨레 기자

###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약속 어기고 PC방 갔지?” 초등생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 관장, 2심도 집유**

한귀섭 뉴스기자

### 스포츠로 애국심 끌어내고 정치적 불만 분산 노려

**북, 새해 첫 '체육의 날'... “건장한 체력으로 새변혁 투쟁열의”**

박수윤 연합뉴스 기자

### 나눔동행

**“받은 응원 돌려주고 싶어” ... 전직 복서 장관 식씨 인생 2막**

천경환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1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민선 2기 체육회에 바란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를 비롯해 17개 시도체육회장과 228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가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의 선거개입과 선거인단의 구성과 자격 시비, 부정선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선거 불복선언과 재선거 요구도 있었다. 228개 지방체육회 선거 지역 중 101개 지역은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의 무관심도 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시민들이 체육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리자를 선출하여 일을 대신하게 하는 과정이 선거이다. 선출된 체육회장들은 시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다.

새로 선출된 각 지역의 체육회장들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각 지역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체육회 예산의 대부분을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받는 재정의 의존성은 큰 부담이다. 체육회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화와 별개로, 민선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여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체육회의 재정 자립을 높여가야 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민선 2기 체육회장의 기본적 태도이다. 체육회장은 자주 문제가 되어 왔던 체육회의 부패와 비리, 예산의 불법 집행, 부정채용과 보은 인사, 파벌싸움 등과 결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보호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서나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확장해야 한다.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 스포츠의 자생력을 균형감 있게 키워내는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체육회장의 비위와 처신의 문제는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체육을 무기로 그 중심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쉬운 표 얻기를 좋아하는 정치권과 야합하며 이권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정치는 스포츠를 살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체육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확충하여 더 나은 스포츠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치의 역할은 중요하다. 상생과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육회가, 체육계가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체육회장의 정치적 중립은 위험한 줄타기의 경계가 아니라 매우 원칙적인 문제로 체육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과거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로운 체육회로 거듭나길 요청한다.

2023년 1월 10일

체육시민연대

# 체육인 500만 명 중 체육회장 뽑는 이는 '단 0.01%'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단 1%의 유권자가 당락을 결정했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이 뽑는 간접선거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대한체육회회장 선거관리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 대의원, 시·군체육회 대의원들이다.

지난달 15일 치른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선 경선으로 16개 시도체육회 차기 수장을 결정했다. 충북도만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했다. 16개 시도 선거인수는 모두 6천672명으로 평균 417명이다. 경기도가 593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227명으로 가장 적다. 투표율은 제주도가 99.6%로 1위, 경기도가 75.4%로 꼴찌였다.

경기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공식 등록된 전체 체육인은 2022년 기준 선수 클럽(전문+생활) 5만1천20명, 운동부(학교+직장) 1만6천384명, 지도자 6천722명, 선수 관리 담당자 43명을 포함해 모두 7만4천169명이다. 전체 체육인 중 0.8%만 투표권이 있는데, 이 중 447명이 투표에 참여해 도체육회장을 뽑았다.

도내 31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11곳이 무투표 당선하고, 20곳에서 경선을 치렀다. 20곳의 총 선거인수는 4천40명, 평균 202명이다. 선거인수 최다는 용인시(342명), 최저는 연천군(62명)이다. 투표율은 54.0%(의왕시)에서 94.4%(여주시)로 편차가 크다. 도와 도내 시·군을 모두 더해도 민선 체육회장 투표권을 가진 인원은 4천633명으로 등록 체육인의 6.2%에 불과하다.

경기도내 체육인은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한체육회 공식 명단과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 동호회 가입 수, 31개 시·군체육회 지도자 프로그램 참여자 수, 도체육회 주요 사업 참여 체육인 수를 합한 결과다. 중복된 수치를 빼도 400만~490만 명에 해당한다. 500만 명을 체육인으로 보면 도체육회장 투표권은 단 0.01%, 시·군체육회장을 포함해도 0.09%에게만 주어진 셈이다.

2021년 진행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도 2천170명뿐이었다.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 모든 조합원이 투표권을 갖는 조합장선거와 차이가 크다. 조합장선거는 민선 체육회장과 같은 위탁선거다.

민선 체육회장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가운데 종목단체장과 시군구체육회장을 뺀 상당수가 '비체육인'이라는 점도 현직 체육인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되는 시도체육회나 종목단체 대의원이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 등 현직 체육인이 아니라 사업가나 변호사, 학교장, 지자체 소속 당연직 이사를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이다.

한 체육인은 "체육인 대표를 뽑는데 체육인이 아닌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며 "정녕 체육인을 위한, 체육인에 의한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 관련 기사

[단독] 18살 유서에 “축구코치 저주…” 김포FC는 또 계약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478.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478.html)

[단독] 유소년팀서 '극단 선택' 발생한 김포FC.. "학폭 근절 기여" 경찰 감사장 받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22505392?OutUrl=naver>

# 스포츠윤리센터,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 지도자 징계 요청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ㄱ군(18살)의 사망과 관련해 집단 괴롭힘 의혹을 받은 코치·선수들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일 “지난 3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독·코치 등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들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사망한 당일 새벽 ㄱ군은 자신의 카카오톡에 유소년팀 코치 두 명과 선수 여섯 명, 중학교 시절 소속팀 선수 두 명의 이름을 적으며 “이들은 죽어서도 저주할 거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윤리센터는 “3년 전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해 피해 선수의 중학교 시절 동료 선수의 괴롭힘, 지도자의 관리 소홀, 감독과 코치가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생활 규칙 위반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삭발을 하는 등 지나친 벌칙을 주고 언어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심의위는 이러한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및 언어폭력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센터는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괴롭힘 방지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소연 심의위 스포츠인권 소위원회 위원장은 “휴대전화 압수, 강제 삭발, 욕설 등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이 같은 지도가 체육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발생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첫 공식 기관의 결론이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시행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윤리센터에는 징계를 직접 내릴 권한이 없고 각 종목 단체와 협회에 권고만 할 수 있다. 이번 ‘징계 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대한체육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 “약속 어기고 PC방 갔지?” 초등생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 관장, 2심도 집유

news1

강원 원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초등생 제자를 폭행한 30대 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약속을 어기고 피시방을 갔다는 이유로 제자 B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 얼굴, 배 등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군에게 약 2주간의 치료는 물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씨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북, 새해 첫 '체육의 날' "건강한 체력으로 새변혁 투쟁열의"

새해 첫 체육의 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북한이 새해 첫 '체육의 날'(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맞은 지난 8일 북한 전역에서는 다채로운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각지 인민들이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다양한 대중체육활동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의 공장, 기업소에서는 집단달리기, 배구, 탁구 경기가 열렸으며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도 여러 경기가 전개됐다.

중앙통신은 "수많은 단위의 체육경기들에서 선수들은 건강한 체력으로 새해에도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이룩해나갈 투쟁 열의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관계자는 조선중앙TV에 "축구와 배구 유희오락경기도 진행하고 진달래원에서는 수영 경기를 조직했다"며 "종업원들의 열의도 대단히 높고 직장 작업반들에서 저저마다 선수들이 이기겠다고 신명내기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었지만, 이를 기념해 체육 경기를 열었다는 언급은 관영매체 어디에도 없었다. 통상적인 체육의 날이자 일요일로써만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2년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해 여러 종목의 운동경기를 진행해왔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전국에 체육 시설을 늘리는 등 스포츠 분야 육성에 쏟는 관심은 더욱 각별해졌다.

2014년에는 부인 리설주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했고 2015년에는 동아시아컵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여자 축구선수들을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나가 직접 마중했으며, 2020년에는 마식령 스키장을 개장하기도 했다. 이는 체육 경기를 통해 주민들의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냄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스포츠 열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불만을 분산하는 통치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받은 응원 돌려주고 싶어” ... 전직 복서 장관식씨 인생2막

“선수 시절 국민에게 받은 응원과 사랑을 이웃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장관식(38)씨는 13년째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002년부터 복싱 밴텀(54kg)급 국가대표로 활약한 장씨는 2005년 이집트 국제복싱대회 금메달, 2006년 인도 군인올림픽 동메달, 2009년 전국체전 복싱 1위 등을 차지하며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다. 얼핏 화려해 보이는 그의 청춘 이면에는 어린 시절 겪은 뼈아픈 가난이 숨겨져 있다.

넉넉지 못한 형편 탓에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다. 중학교 시절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말에 복싱을 시작했고, 제대로 된 글러브 하나 살 돈이 없어 낡고 냄새나는 공용 글러브를 끼고 운동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진을 만난 그는 “가난의 고통을 잘 알기에 훗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다”며 “국가대표로 링에 오르면서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가 고향인 장씨는 2014년 은퇴 후 청주로 내려와 복싱의 대중화를 위해 생활복싱체육관을 차렸다. 체육관이 자리를 잡기 전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진정한 봉사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봉사에 나섰다. 가장 먼저 지역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징검다리를 찾아가 연탄 배달 봉사 등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긴 장씨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색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봄·여름에는 영화 '주먹이 운다'에서 영감을 얻어 '길거리 인간 샌드백'을 자처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 남자 1만 원, 여자 5천 원의 참가비를 받아 시민 30여 명을 상대했다”며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모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을과 겨울에는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봉사하는 척하며 체육관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왕성하게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장씨의 진심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은 원래 고구마 가격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등 나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런 선행으로 그는 2018년 청주시 모범시민상에 이어 지난해 12월 충북지사 표창장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나눔에 대한 장씨의 작은 열정은 또 다른 선행을 불러 모았다. 청년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3년 전 설립한 '청년징검다리'라는 봉사단체에 체육관 제자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까지 가입해 힘을 보탤다. 60명으로 시작된 자원봉사자는 어느덧 100명으로 늘어 착한 점심 나눔봉사, 사랑의 빵 만들기, 거리 환경미화 봉사 등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 손을 내밀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 선수를 후원하는 협약을 충북도체육회와 체결하기도 했다. 장씨는 “코로나19로 체육관 운영이 녹록지 않을 때 나 또한 주변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며 “서로 돕고 격려하는 선한 영향력은 부메랑이돼 돌아온다는 진리를 전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당.정 "폐교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설치..부실대학 구조개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230](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230)

호주에 뿌리내린 'K-골프교육'!...한국인 코치의 열정과 도전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46&key=202301081930397560>

전국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당구대회, 첫 대면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917447>

선수협 이근호 회장 "올해도 선수들 권리 보호 앞장설 것"

<https://www.stnsport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35>

여자 농구 올스타 선수들, 농구 꿈나무들과 연습 및 친선 경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36026&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36026&plink=ORI&cooper=NAVER)

수영 男女 국가대표 후보선수단과 꿈나무선수단, 동계합숙훈련 성료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109/117353497/2>

계룡장학재단, 전국체육대회 입상 학생에 장학금 전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4\\_0002148265&cID=10807&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4_0002148265&cID=10807&pID=10800)

"희망과 노력을 잊지 마세요", 월드컵 16강 주역 김영권 선수 모교 방문

<https://www.jjan.kr/article/20230106580030>

"누가 이겼나요?" 심정지 3일 만에 깨어난 풋볼 선수 질문에...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074724.html](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074724.html)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